

# 조계종 종단사 펴낸다

## 불학협 집필방향 확정...내년 10월 발간 종조·법통등 통일...“종단 정체성 확보”

종단 정체성과 종단관 확립의 기틀을 마련할 조계종단사가 종단역사상 처음으로 편찬된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도원)는 2일 종단학 회의실에서 조계종단사 편찬을 위한 3차 워크숍을 갖고 편찬 방향과 집필원칙을 확정했다. 이로써 내년 10월, 조계종단사가 발간돼 종도와 일반인, 기본교육기관 학인들이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에 발간되는 조계종단사는 종조와 중흥조, 법통 등 그동안 논란이 돼온 민감한 사안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정리되어 제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끈다.

이번 워크숍에서 가장 논란이 된 근대이전 역사에 대해 학자들은 종단전체의 입장을 하나로 통일하여 담기가 어려운 만큼 연구사적으로 현황과 과제를 서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단의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입장에서 종단차원의 워크숍을 앞으로도 몇차례 더 개최해 이번 기회에 근대이전의 종단사를 부록의 형태로 정리하겠다는 것이 교육원의 방침이다.

2일 워크숍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계종단사 편찬방향은 종현·종법에 입각하여 △연기와 등체대비의 관점 △인물 학술 문화에

술 교화 역경 사상등 분야별로 폭넓게 △시대의 역사 정리 △불교적 이상과 실천 △수행자 신앙등을 통해 종단의 미래비전 제시에 초점을 맞췄다.

총 4장과 부록 등 4백쪽 분량으로 발간될 조계종단사는 1장 개항 이후 조계종단사, 2장 일제강점기의 한국불교, 3장 8·15해방과 정화운동, 4장 조계종의 출범과 발전 등의 제목으로 기술되며, 근대이전의 조계종사는 부록으로 담는다.

주요 내용은 조계종 성립사, 종조와 중흥조, 법통설, 개화기 불교계의 자각과 현황, 도성출입금지제와 승공운동, 불교계의 사회활동, 원종의 성립과 의의, 불교중흥 노력과 사형형, 불교자주화와 종단 건립, 선학원 설립과 선종진작, 흥본선선운동과 태고사, 정화운동과 한국불교전통회복, 종단의 자주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는 2일 제3차 워크숍을 개최하고 조계종단사 편찬 방향과 기술내용을 확정했다. 사진은 3차 워크숍 장면.

성과 민주화, 개혁신단 성립과 발전 등이 기술된다.

집필자는 김상영(중앙승가대 교수) 김광식(대각사상연연구원 연구부장) 김경집(동국대 강사) 이재현(정신문화연구원 강사) 박희승(조계종 총무원 기획과장) 김순석(독립기념관 자료실 위원)씨 등이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도원스님은

“종단사의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이 시대 종단이 나아갈 수행과 교화의 길을 제시하겠다”며 “종단사는 근·현대 끝없는 분류로 얼룩진 종단역사의 반성속에 역사적 정통성과 사상적 정체성을 확인하여 종단위상을 쇄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 종 단 소 식

#### 조계종

##### 삼학사 재발파시험 요구

조계종 총무원과 제4교구 본사 원정사 및 말사인 삼학사는 최근 쌍용양회 석회석 채취를 위한 발파폭을 빙동으로 인한 삼학사 문화재 훼손과 관련, “쌍용양회측이 당초 합의한 약량인 410kg을 지키지 않고 388kg으로 시험발파를 강행하려 해 1차 합동시험발파(8월30일)를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재발파시험을 요구했다.

##### 가야산 도로관통 반대

해인사(주지 보광)는 최근 조계종중앙총회 사회문화위원회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해인사는 국가지원지방도로 59호선(가야-봉산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전입보상문제 등을 정부와 협의하는 것보다 문화유산의 훼손을 막고, “그러나 지난 98년 2월 정기 임회에서 선정한 지방도로 59호선 개설 저지 상임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종단 스님들과 연구원 교수등 1백여명이 동참했다(사진).

##### 관수사 24일 법당 낙성

남일 관수사(주지 갈웅)는 24일 오전 10시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스님들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법당 낙성식을 봉행한다.

#### 진각종

##### 불우이웃에 자비쌀 전달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성초)은 추석을 맞아 6일 성동구청에 10kg들이 100포, 7일 성북구청에 10kg들이 300포 전달 등 서울 시내 각 구청 가정복지과 및 사회복지과를 통해 불우이웃돕기 자비의 쌀 총 700포를 전달했다.

#### 총회종

##### 원찰건립위원장 청해스님

8월 26일 대전 대덕사에서 종단 간부스님 8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원찰건립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열고 원찰건립불사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포교원장 청해스님(만경사 주지)을 선출했다. 또 부위원장은 각 교구총무원장스님들이 맡기로 했다. 총무원은 원찰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오는 2003년 5월에 하기로 했다.

#### 태고종

##### 통일기원 수록제

제주총무원(원장 수암)은 23일 오후 2시 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서 평화통일 기원 및 환경보존실천을 위한 수록제 행사를 열었다. 1부 기원법회 2부 수록제 3부 방생의 순으로 진행될 이번 방생제는 평화통일 기원, 신종작법 대령 관육 천수바라 등 전통불교의식으로 봉행된다. (064)752-2810

#### 천태종

##### 금강불교학원 사무처 현판

금강대학교 설립을 위한 금강불교학원 사무처 현판식이 7일 관문사 2층 법인 사무실에서 봉행됐다. 총무원장 운덕스님과 박형철 참의위원장, 총무부장 덕수스님 교육부장 도원스님과 이재창 천태불교문화연구원장 등

#### 무량종

##### 청승김호소 떡·유유 전달

보명 경북총무원장(도선사 주지)은 신도회와 함께 6일 경북 청송 제1감호소에서 5백여명 감호인들에게 떡과 유유 등을 전달하고 추석맞이 위안법회를 봉행했다.



무안 연꽃대축제 성황  
'제4회 무안 연꽃 대축제'가 2~5일 전남 무안군 일출연꽃축제장에서 열렸다. 무안군 주최, 불교종단협의회 및 무안불교연합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2일 법요식(사진), 3일 불교문화 예술제 등도 거행됐다.

## 동화사 10월 10일 개산제

고운·통도·금산사도 준비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주지 성덕)는 개산 1507년을 맞아 개산대제 봉행위원회(위원장 성덕)를 구성, 오는 10월 10일 개산대제를 봉행키로 확정하고 세부 일정 마련에 들어갔다. 10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대제에서는 개산조(開山祖)인 국달화상 영정이유식에 이어 봉축 법요식이 통일대불전에 열리며 보살계 수계식, 만동불사 및 관동, 통일기원 탑들이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개산제 행사 전후 1주일동안 펼쳐지는 문화행사는 팔공산의 자연과 문화재를 테마로 한 사진경연대회와 동화사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담은 동화사 사진공모전, 불교

## 봉림사 백고좌 법회

21~12월 29일...봉림산문 중흥발원

경남 창원 봉림사(주지 운남스님)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큰법당에서 봉림산문의 중흥과 대웅전 초상 원만회화를 위한 제1차 고승초상 백고좌 대법회를 개최한다. 백고좌법회는 신라 원광법사가 경주 황룡사에서 나라의 재난을 막고 왕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인왕반야경>을 설한데서 비롯됐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거행되는 백고좌 법회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9월 21일 청화 태안사 조실(이날만 목요일) △9월 29일 압도 전 조계종포교원장 △10월 6일 해인 약천사 회주 △10월 13일 무진장 전 조계종포교원장 △10월 20일 자광 극락사 주지 △10월 27일 금강 극락선

원장 △11월 3일 무비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11월 10일 철웅 선전암 회주 △11월 17일 성우 파계사 주지 △11월 24일 고산 전 조계종총무원장 △12월 1일 철우 파계사 원장장 △12월 8일 중진 중앙승가대 교수 △12월 15일 백봉 전 동화사 주지 △12월 22일 해곡 남곡선원장 △12월 29일 근일 영주 부석사 주지 등.

창원시 봉림동 봉림사에 폐사지로 남아있는 봉림사지 입구에 위치한 봉림사는 2년과정의 불교대학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대웅전 불사가 막바지에 이르는 등 도량불사에도 힘을 쏟고 있다. (055)267-6336

## 미륵사지 아파트 익산사암련 반대

익산사암련협의회(회장 지광스님)가 미륵사지부근 아파트 건설건과 관련, 시민단체와 연계해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나선다.

익산사암련협의회(회장 지광스님)가 미륵사지부근 아파트 건설건과 관련, 시민단체와 연계해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나선다. (본지 285호 22면 기사 참조)

익산사암련은 관계 부처의 다각적인 의견을 청취한 결과 미륵사지 주변환경 보존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 분석하고 4일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또 문화재를 보존해야 할 문화재청에서조차 아파트 건설을 압류적으로 허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사암련은 익산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미륵사지 주변환경 보존을 위한 대책을 강구기로 했다. 지광스님은 “익산시가 미륵사지 보존계획도 세워두지 않은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아파트 건설을 허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익산지역 불자들의 힘을 모아 대대적인 미륵사지 보존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네팔불교 중흥·통일발원 천승제

### 용화정사 내달 카투만두서

한국의 스님이 네팔·티베트 스님 1000명에게 공양을 올리는 천승제(千僧齋)가 열린다.

수원 용화정사 주지 성관스님(수원불교연합회회장)은 10월 8일 네팔 카투만두 보트나트 불탑(세계 최대)에서 네팔·티베트 스님 1000명을 초청해 인도·네팔불교 중흥 및 남북통일기원 천승제를 거행한다.

용화정사 신도 40여명과 함께 실시하는 인도·네팔 성지순례를 겸한 이번 천승제는 티베트 린포체 스님의 법문과 성관스님의 답례사 및 법문, 감사장 전달, 공양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성관스님은 “목련존자가 지옥에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스님 500명에게 공양한데서 착안한 이 법회는 천승제 공덕의 원력을 빌어 인도·네팔불교의 중흥과 남북통일을 기원한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 신도들의 승보에 대한 존경심을 환기시키고, 수원불교계가 인도·네팔 불교와의 교류를 시작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는다”고 법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수원구치소교화위원 및 수원경찰서 경순이기도 한 성관스님은 4일 수원종합운동장 트레이닝장에서 수원 조원동사무소 후원으로 어르신 1000여명을 초청, 경로잔치를 베풀었다.

### 위빠싸나수행센터 보리수선원

## 경전강의

보리수선원에서는 팔리어 원본을 번역한 원역본의 초전법륜경과 대념처경을 4개월에 걸쳐 강의할 예정입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으로 금구를 열어 다섯 비구들을 성인의 경지까지 이끈 법문 초전법륜경(담마짜까: dhammacakka)은 깨달음의 과정과 중도, 사성제, 팔정도 등이 주요 내용이며,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입니다. 불자라면 부처님이 처음으로 중생들을 위해 설하신 초전법륜경과 올바른 수행을 위한 지침서인 대념처경은 원전을 통해 꼭 알아야 할 경전입니다.

**경전강의 시간**

- 초전법륜경 : 2000년 10월 7일 ~ 11월 25일 -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9:00
- 대념처경 : 2001년 1월 6일 ~ 2월 24일 -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9:00

**경전 강의**

- 붓다락타비 비구

**수강료**

- 50,000원(4개월 강의료)
- 예금주 : 보리수선원 / 외환은행 : 287-18-09222-3

**신청방법**

보리수선원 증무소에서 강의 일주일 전까지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 928-2844 / e-mail : borisu01@hananet.net  
홈페이지 : www.borisu.or.kr

위빠싸나수행센터  
**보리수선원**  
BODHI MEDITATION CENTER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32-1 이반학우스님빌딩 3층

## 佛敎儀式 (법음·법패) 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법음·법패> 교육에서는 권위 있는 연구 원장 <선파 콘스님>과 교수인 <해암스님>을 모시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	내용
· 기본과정	일반 사부대중의 의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교육에 노력함 도량성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사물(기초) 다루는 법
· 중급과정	기존의식과 대승적 교육에 필요함을 필수적 동함 의식에 미비함을 절 대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분들! 승주권공, 대령관공, 권공, 영반, 지장정, 제반의식등(천수부, 법성제, 요점등)
· 연구반	기존 사찰 소임에 여타 어떠한 중임에 일반적 위기의식에 걸여로 고민하는 분들(신중작법, 다계작법, 천수바라, 나비춤, 오공양자법등, 연불선의 경지를 추구하는 분)
· 특별반	내년 불기 2545년(2001년)에 윤달의식인 예수제를 준비하는 각 사찰 및 재가, 신도, 승의 여법한 준비 자제에 임하는 사부대중의 공부에 충 실코자 금반 특별 신선에 종력을 경주 하였습니다.

◆ 개강일시 : 수시접수함 (매주 목요일 오후 금요일 오전, 오후 강의함)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 사진3매

※ 본대학은 조종과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 승려 후보생의 수제독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권의 제공

※ 초심자 승려 재가 법사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성심껏 지도함

※ 야간반을 계획하오니 많은 동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843번지  
대한불교 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대학 사무국  
☎ (051) 442-5952, 467-3316

### 海東元曉佛敎魚山儀式大學

###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 신식 감정콩

## ‘金檀檀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변보다 더 쓰러라니까!”

**진적정성 93%** 인간의 건강이 금세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원이 담겨 지어진 감정콩의 이름이다. 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감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감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 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한다.

**“신식 감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2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에 쓸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